

오늘부터 유·초·중 다시 '1/3' 등교... 고3 원격수업 전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교육부, 학사 운영기준 강화 적용
수능 전 날 검사시 당일 결과 통보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3분의 1 이하로 제한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이 현실화하면서 정부가 24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리면서다. 49만명이 응시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열흘 앞두고 특별방역기간이 운영되는 가운데 학교 밀집도도 강화된다.

3차 유행의 심각성과 내달 3일 열리는 수능을 앞두고 확진자 수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선제적으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대해 거리두기 2단계로,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권에 대해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중대본이 24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호남권 1.5단계로 각각 격상함에 따라 학사 운영 기준을 강화 적용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 수도권의



초등학교 1학년생들이 매일 등교를 시작했던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성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등교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유치원과 초, 중학교에는 전교생 3분의 1만 등교한다. 학교별 상황에 따라 최대 3분의 2까지 등교생 수를 늘릴 수는 있다.

그러나 수도권 시·도 교육청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추세와 수능 일정을 고려해 '3분의 1 이하 등교' 원칙을 최대한 지키는 방침이다. 다만 수도권 고등학교의 등교 인원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와 마찬가지로 3분의 2

이하로 유지된다.

1.5단계로 격상된 호남권 지역 학교는 유·초·중·고 모두 밀집도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기존 1단계에서는 학교 및 지역 여건에 따라 등교 인원을 확대할 수 있어 해당 지역 학교 대부분이 전면 등교를 해 왔다.

유치원 60명 이하, 초·중·고등학교 300명 내외의 소규모학교와 농산어촌 학교 및 특수학교는 2.5단계까지 기존

의 방침과 같이 밀집도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돌봄, 기초학력·중도입국학생의 별도 보충지도의 경우에도 2.5단계까지 기준과 같은 방침을 유지한다.

다음달 3일 수능을 앞두고는 전국 고등학교 등이 일찌감치 원격수업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과 수능 시험장으로 사용되는 학교는 수능을 1주일 앞둔 오는 26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수능시험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막기 위해 그 전이라도 시·도 교육청 자율로 원격수업 전환이 가능하다.

서울과 제주, 강원 등 일선 교육청은 이미 고3 학생의 원격수업 전환을 권고했다. 강원은 지난 16일부터, 서울시는 19일부터 고3 학생들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 권고에 따른 학습 체계를 실시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관내 일반고·자율형공립고·자율형사립고 총 230교 가운데 67%인 153교가 고3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했다.

이에 더해 교육부는 수험생이 수능 하루 전인 다음달 2일 코로나19 진단검

사를 받으면 검사 결과를 당일 받아볼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과 협의했다.

그러나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도 수능을 코앞에 둔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코로나19의 잠복기가 10일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효과는 최소 10일에서 통장 2주 정도는 지나야 나타나기 때문이다.

경기도 수원의 한 고3 수험생 학부모는 "엄마들 사이에서 선제적으로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했어야 한다는 우려가 있었다"면서 "아이가 주로 스터디카페에 갔는데 요즘 확진자가 너무 많아 집에서 공부하고 있다. 수능이 끝나도 곧바로 논술·면접 등 시험이 있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특히 대학수능시험을 전후한 방역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승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열흘 뒤로 다가온 수능을 치르는 우리 학생들을 생각해 달라"면서 "3년간 학업에 열중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디지털대성, KT와 비대면 교육 혁신 선도

디지털대성, 입시강의·논술 등 콘텐츠
KT, 원격 온라인 교육플랫폼 구축
"누구나 평등하게 양질의 교육 경험"

디지털대성은 KT와 온라인 교육 서비스사업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디지털대성은 이번 사업 협력으로 KT가 구축한 새로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교육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디지털대성은 입시 강의부터 논술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입 온라인 교육 플랫폼 '대성마이맥'을 운영하고 있다.

KT는 비대면 환경에 최적화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격 온라인 교육플랫폼을 구축했으며, 해당 플랫폼



김희선 디지털대성 대표이사(오른쪽)와 김호배 KT 전무(신사업본부장)가 사업협력 계약을 체결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디지털대성

을 지속적으로 확장, 고도화할 예정이다.

디지털대성 김희선 대표는 "이번 협력을 통해 코로나19로 발생한 지역, 환경, 학생간의 학습 격차를 완화시키고, 나아가 누구나 평등하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혼란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이전과 동일한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

교육부는 24일 오전 9시부터 내달 29일 오후 6시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에플리케이션에서 2021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대학 재학생·입학 예정자·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중 신청자는 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다음달 31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시 입력한 가족정보와 주민등록

전산 정보·가족관계 등록 전산 정보가 다를 경우, 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활용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는 신청 1~3일 후 재단 홈페이지, 문자 안내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액을 결정하기 위해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조회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도 필요하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으려면 직전 학기 성적이 B 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C 학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학자금 지원 1~3구간 학생의 경우 C 학점을 2회까지 허용하는 등 완화된 성적 기준을 적용한다.

/세훈·한용수 기자 hys@

황석원 교수팀, 방광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고려대)

원활한 배뇨 유도 가능

고려대는 황석원 KU-KIST 융합대학원 교수(사진)팀이 삼성서울병원 및 Penn state 대학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광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배뇨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스템은 부드럽고 신축성이 높은 생체 삽입형 전자 소자를 방광에 결합하고(온도변화, 근육 신호, 수축/팽창) 제어 시스템(배뇨 유도)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연구결과는 세계적 권위의 과학 저널 '사이언스 어드밴시스'(11월 11일자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인체에 무해하고 유연·신축성이 높고 그물망 구조 플랫폼에 다양한 센서와 광유전학 시스템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부피가 변화

하는 방광에 안정적으로 결합했다. 이를 소변 배출이 원활하지 못한 저활동성 방광 배뇨 질환 모델에 적용해 실시간 방광 활동(온도변화, 근육 신호, 수축/팽창) 모니터링을 통해 정확한 소변 배출 시점을 분석하고 광유전학 자극을 통해 원활한 배뇨를 유도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현진 기자

홍근표 세종대 교수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세종대는 홍근표 식품생명공학과 교수(사진)가 수행한 연구과제가 '2020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홍근표 교수는 '영양과 식감을 개선한 고령자 맞춤형 기호식품 개발'을 주제로 연구해 생명·해양 분야에서 뽑혔다. 홍 교수는 초고압, 저온, 숙성을 통한 연한 육류 식품과 포화수증기를 이용한 어류 식품 개발에 성공했다.

/이현진 기자



호서대, 대학-지역 협력 네트워크 포럼 성료

호서대 교육혁신처 교수학습센터는 지난 21일 '2020 CanDo Leader 성과 발표회 및 미래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CanDo Leader' 프로그램은 '벤처정신을 가진 사회공헌형 인재'라는 호서대의 인재상 구현을 위한 수월성 학습지원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기존 북파티(Book Party)·창의융합·봉사 프로젝트에 시대적 흐름에 맞춰 4차 산업 프로젝트를 추가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창의력교육학회 김누리 학술위원장, 선문대 IT교육학부 김진목 교수, 아산시사회복지협의회 신선영 사무국장 등 프로젝트별 전문가



온라인 '2020 CanDo Leader 성과발표회' 모습 /호서대

와 참여 학생 및 지도교수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과 연계한 미션 게임개발, 언택트 사회 적응 코드북, 모바일 플랫폼기반 소방시스템 등 다양한 주제로 총 21개 프로젝트의 성과발표가 진행됐다. 주제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 방안 논의도 이뤄졌다. /이현진 기자